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249-260
<https://doi.org/10.29212/mh.2018..107.8>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한국학계의 새로운 연구를 자극하는 영미학계의 한국전쟁 연구

— 스티븐 케이스(Steven Casey) 외 지음, 이상호·박성진 옮김,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

이동원*

1.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에 대한 영미학계의 시선

이 책은 2010년 4월에 발간된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33 No.2에 게재된 여섯 편의 논문들을 저자 중 한 명인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국제사학과 교수 스티븐 케이스(Steven Casey)가 『한국전쟁 60년: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접근(The Korean War at Sixty: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Korean War)』 이란 책으로 엮어내고, 이를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호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성진이 번역하여 2017년 국내에 소개한 결과물이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0년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국내외 연구자들이 이 전쟁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하고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었던 해였다.¹⁾ 이 연구들은 전쟁의 기원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겪어냈던 한국인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실제적 경험과, 전쟁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변화, 이 전쟁이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시각과 범위를 다각화하고 확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10년대 다양한 한국전쟁 관련 연구서들의 출간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한국전쟁 연구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²⁾

따라서 이 책은 『한국전쟁의 국제사(Korean War as International History)』의 저자로 한국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윌리엄 스투크(William Stueck)을 필두로 스티븐 케이시, 찰스 S. 영(Charles S. Young) 등 영미 학계 한국전쟁 연구자들의 연구 수준과 경향을 이 시기 국내 학계와 비교하여 가늠해볼 수 있는 훌륭한 비교 대상이다. 로버트 반스(Robert Barnes)가 책의 서론에서 자평하였듯이 이 책은 “동

1)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편,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0; 역사문제연구소, 포츠담현대사연구센터 공동기획,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역사비평사, 2010;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서중석 외, 『전쟁과 사람들: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 선인, 2010; 김동춘 외,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 한울아카데미, 2010; Bruce Cummings, *The Korean War: A History*, (New York: Modern Library, 2010)

2) 서중석 외, 『전쟁 속의 또다른 전쟁』, 선인, 2011;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선인, 2011;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이임하, 『적을 빨라로 물어라』, 철수와 영희, 2012;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박영실, 『중국인민지원군과 북 중 관계』, 선인, 2012; 김태우, 『폭격』, 창비, 2013; 정병준 외,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선인, 2014;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한울아카데미, 2015; 남기정, 『기치국가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보영, 『전쟁과 휴전』, 한양대학교출판부, 2016; 백원담 외, 『열전 속 냉전, 냉전 속 열전』, 진인진, 2017; 한모니가,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7.

맹 외교, 군사 전략, 여론과 역사 기억에 관해서”, “여러 편의 논문이 적절히 잘 조합된 것”이며, “한국전쟁의 여러 측면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2. 낯설고도 익숙한 이야기들

아쉽게도 이 책에 실린 여섯 편의 논문들이 모두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내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윌리엄 스톡과 셴즈화(沈志華)의 연구는 부분적으로 흥미로운 대목이 있지만 새로운 통찰과 시각 면에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연구이다.

윌리엄 스톡과 그의 제자인 볼티모어대학 조교수 이보람이 함께 쓴 이 책의 첫 번째 논문, 「혈맹: 미국의 남한 점령, 한국전쟁, 그리고 한미 동맹」은 해방 이후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한미관계가 왜 불안정했는지를 미국인과 한국인들의 점령-피점령 관계와 그로 인한 갈등 경험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일본군과 싸웠던 미군 병사들은 한국인에 대해서도 “아시아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오만하고 무례한 “미군 병사들의 활동에 명백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점령-피점령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오해와 갈등을 직접 경험자들의 회고를 통해 미시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이 논문이 로버트 반스가 서론에서 평가하였듯이 “방대한 한국 측 자료들과 미군 문서들을 활용해 기존의 전통적 해석을 뛰어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한국 측 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미국인의 시선에서’ 정리된 점령자 측의 경험과 인식을 정리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피점령자인 한국인들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점령자의 시선에서 이해된 수준에서만 설명되었다. “한국인들은 만연한 가난과 일본인 지주와의 두 세대에 걸쳐 굳어진 관습 때문에 미 점령군과 보급창에 대한 좀도독질에 가담했다.(52쪽)”는 식의 서술은 점령 정책 실패와 점령 행위 자체에 대한 항의 및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국인들의 행동을 가난과 관습의 탓으로 돌리는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이다. 한국을 ‘해방 공간’이 아니라 패전국 일본의 일부로 인식했던 미군정의 ‘점령군으로서의 태도’가 미군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끼친 영향과 해방 이후 주권국가 수립을 열망했던 한국인들의 자치 능력에 대한 부정, 친일 세력의 기득권 유지가 한국인들에게 준 좌절감을 외면한 채 인종적 편견과 문화적, 관습적 차이로 이 시기 점령-피점령 관계의 갈등과 긴장을 설명하는 것은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정용욱의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으로 대표되는 한국학계의 미군정기 연구는 점령 정책의 문제점과 한미간 갈등 구조의 원인을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세밀하게 드러냈고, 이러한 연구들이야말로 “방대한 한국 측 자료들과 미군 문서들을 활용”하여 ‘준비부족론’이나 ‘선의의 무지론’ 같은 “기존의 전통적 해석”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³⁾ 따라서 역자 후기에서도 날카롭게 지적하였듯이 이 연구는 “주한미군정 시기에 대한 미국 학계의 수준(제1차 자료에 대한 인식, 특히 한국 자료,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신선험보다는 아쉬움이 더 커 보인다.

두 번째 논문인 선즈화의 「중국과 소련 공군의 파견: 한국전쟁 초기 북중소 동맹의 형성」은 국내에도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 한국전쟁과 북중소 관계에 대한 필자의 저서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이다.⁴⁾ 소련

3) 정용욱 외,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푸른역사, 2018.

4) 선즈화 지음, 최만원 옮김,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선즈화 지음, 김동길 옮김, 『조선전쟁의 재탐구-중국, 소련, 조선의 협력과 갈등-』, 선인,

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특히 이 논문은 한국전쟁기 중국군에 대한 소련의 공군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벌여졌던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갈등과 긴장 관계에 주목하였다. 스탈린은 미국 개입에 대응해 중국이 파병할 경우 항공 지원 제공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을 결정했던 1950년 10월에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련 공군 지원이 최소한 두 달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선즈화에 따르면 스탈린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미국과의 직접 충돌에 대한 우려, 비밀 외교 채널을 통한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희망, 유엔군의 38선 돌파로 인한 전황 변화가 그 원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중국이 처했던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에서 차지하고 있던 중국의 위상 및 책임을 역으로 고려”하여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싸우기로 결정(101쪽)”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즈화의 논의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에서 그려낸 중소 관계의 기본 구도와 일맥상통 한다. 스탈린은 소련의 국익이라는 협소한 이해에 천착하여 한국전쟁을 승인하였고 미국 참전 이후 북한의 구원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하는 이기적인 지도자로 묘사되는데 비해, 마오쩌둥은 사회주의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중국의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하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로 묘사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모택동의 생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후의 천조』에서는 1970년대 북중소 관계까지 확장되어 중국의 북한에 대한 변함 없는 우의와 지원은 마오쩌둥의 전통적 ‘천조(天朝) 의식’의 표현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선즈화의 주장은 영미권 학계나 한국 학계에서 접근하기 힘든 중국

2014; 선즈화 지음, 김동길 옮김, 『최후의 천조』, 선인, 2017. 이 중 앞의 두 권은 모두 沈志華, 『毛澤東, 斯大林與朝鮮戰爭』(廣東: 廣東人民出版社, 2003)을 번역한 책으로 같은 출판사에서 재출간한 것이다.

당안관 문서를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장점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아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마오쩌둥과 중국을 긍정적으로만 묘사하는 ‘자국 중심적 시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른 연구들에서 이미 상세하게 밝혀진 한국전쟁 참전을 둘러싼 중국 내 갈등, 중국의 국익을 고려한 마오쩌둥의 참전 동기, 국공내전 당시 마오쩌둥을 도와 ‘동북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북한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폄하하면서 마오쩌둥과 중국의 의도 및 동기에 대해서는 순수하고 선한 방향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⁵⁾

3. 새로운 영역의 개척 가능성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논문인 로버트 반스의 「침략자로 규정하기: 영연방과 유엔 그리고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1950년 11월~1951년 1월)」과 스티븐 케이시의 「사상자 보도와 국내의 전쟁 지지: 한국전쟁기 미국의 경험」은 한국전쟁 연구에서 비교적 새로운 영역을 다루면서 영국 학계의 독창적 시선을 보여준다.

영국 요크세인트존대학교(York St John University) 전임강사인 로버트 반스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이후 유엔 내에서 이루어진 대응과 관련하여 “역사학자들 상당수가 영연방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과”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 영연방 국가들이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려

5) 주지안롱(朱建榮) 지음, 서각수 옮김,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역사넷, 2005; 길재준, 이상진,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후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에 위치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는 미국 주도의 유엔 ‘침략자’ 결의안에 대응한 방식과, 결국 미국의 일정한 양보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그려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영연방이 영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대립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 각국이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951년 1월에 이르면 ‘태평양안전보장조약’의 체결 가능성을 중시했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캐나다도 미국 편으로 돌아서는 등 영연방의 균열상이 명확해졌다. 영국은 인도와 함께 영연방 내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결의안에 반대했지만, 영미 모두 서구 동맹의 분열을 우려하면서 결국은 결의안 초안 수정이라는 미국의 일정한 양보를 받아내는 선에서 ‘침략자’ 결의안에 찬성 투표함으로써 결국에는 영국도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기 영연방을 중심으로 한 유엔 내의 이러한 갈등과 조정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더욱 뚜렷해진 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면서 미국을 견제함으로써 또 다른 과국을 막고자 했던 영연방 국가들의 고민과 역할의 일단을 보여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립블록을 형성하고 비동맹주의로 나아갔던 인도의 역할과 입장에 새삼 주목하게 한다. 이 논문은 유엔의 중국 결의안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던 짧은 시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지만 한국전쟁을 전후한 유엔과 비동맹의 역할, 제3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스티븐 케이시의 논문도 한국전쟁 사상자 보도가 미국 대중의 전쟁 지지에 끼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영역의 개척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국전쟁 초기 전투가 극도로 유동적인 상황에서 정확한 사상자 보고는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맥아더가 미군 사상자 수를 축소 발표하면서 여론 주도층과 언론은 공식 발표된 사상자

수를 의심했고 오히려 인명피해를 과장하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상자 논쟁이 치열했던 “1951년 1월과 1952년 10월의 두 주요한 순간에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 내 지지가 갑자기 하락했다.(207쪽)” 1951년 1월 사상자에 대한 과장된 언론 보도 속에서 “징병자 위반자 수가 제2차 세계대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었다.(209쪽)” 또한 1952년 10월 백마고지 전투의 사상자 수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아이젠하워의 계속된 요구는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를 다시 한 번 촉발했다.(211쪽)”

이 연구는 “사상자가 늘면 지지는 감소한다.”는 밀러의 보편적 명제가 한국전쟁 시기에 반드시 옳은 명제는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사상자 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상자 수를 다루는 군과 정부의 태도와 접근 방식, 언론과 정치인 등 여론 주도층의 이에 대한 평가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 방법을 한국전쟁기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파병에 대한 찬반 입장을 선택할 수 있었던 미국 대중들과 달리 선택의 여지없이 삶의 터전에서 일어난 전쟁을 고스란히 겪어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 사상자 보도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엘리트들의 노력과 복잡한 상호작용, 나아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했던 대중들의 전쟁 경험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 역사적 상상력의 효용과 한계

네 번째와 여섯 번째 논문인 콜린 F. 잭슨(Colin F. Jackson)의 「잃

어버린 기회인가, 아니면 모험인가? 한국에서의 전략적 기회와 위기의 고조(1951년 4~7월)』와 찰스 S. 영의 「전쟁포로: 한국전쟁이 잊혀진 숨겨진 이유」는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상상력이 역사적 사실들과 충돌할 때 생기는 불편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미국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 교수인 콜린 F. 잭슨은 밴 플리트(James Van Fleet) 미 제8군사령관이 1951년 5월말 입안했으나 리지웨이(Matthew Ridgway) 유엔군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에 의해 거부되어 무산된 통천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당시 중국군은 1951년 1월과 4월의 공세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반면 유엔군은 화력, 기동성, 병참 부분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장의 주도권은 유엔군으로 넘어온 상태였다. 이때 밴 플리트가 제안한 대로 통천 상륙작전을 실행했다면 “유엔군사령부는 평양에서 원산을 가로지르는 좁은 목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153쪽)”할 수 있었고, “적의 수도 점령과 더불어 짧은 방어선 구축을 통해 방어가 수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서 통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을 것이라는 잭슨의 주장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도 인정했듯이 리지웨이와 합참이 통천상륙작전에 반대했던 것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해임과 상원 청문회 개최 등 미국 국내 상황으로 인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다. “확전에 반대하는 워싱턴의 분위기” 속에서 “밴 플리트의 안은 맥아더의 거대한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다. 1951년 5월 17일에 확정된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문서인 NSC 48/5도 “전쟁 이전 국경선에 기초하여 평화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미국의 정책 목표를 수립했다.(173쪽)” 따라서 리지웨이와 합참은 군인으로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 목표에 충실했을 뿐이고, 오히려 밴 플리트가 자신의 계획안을 사후에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물

론 밴 플리트의 안은 “그 의도와 기원, 자원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맥아더의 구상과 완전히 달랐다.” “중국의 생산 시설을 공격하려는 맥아더의 구상과 달리 밴 플리트의 상륙작전안은 한반도에 국한(168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와 무관한 전쟁은 있을 수 없고 전략적 목표를 거스르는 군사 작전은 그 자체가 이미 ‘순수한 군사적’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미국 서던아칸소대학교(Southern Arkansas University) 교수인 찰스 S. 영의 논문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한국전쟁 포로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군이 제시했던 ‘자원 송환’ 원칙이 미국에서는 결코 ‘승리의 대체물’이 될 수 없었던 맥락을 밝히고 있다. 영은 잭슨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만약 트루먼 대통령이 중국을 자극하여 재난을 불러일으키기보다 38선에서 맥아더의 북진을 중단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상상해보자. 전쟁은 인천에서의 대성공으로 4개월 안에 승리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베를린 봉쇄와 쿠바 미사일 위기를 무색케 하는, 냉전에서 미국이 거둔 최고의 순간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219쪽)”는 가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랐다. 유엔군은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했고, 예상과 달리 중국이 참전하였으며 어느 쪽도 군사적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채 지루한 휴전회담 끝에 전쟁은 막을 내렸지만, “전쟁의 핵심 요인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특히 휴전회담을 2년여 이상 끌게 만든 것은 18개월에 걸쳐 논쟁이 된 포로 문제였는데, 미국은 체네바 협정의 ‘본국 송환’ 원칙을 ‘강제 송환’이라 비판하면서 ‘자원 송환’이라는 “승리의 대체물”을 발견하였지만, 정작 ‘자원 송환’ 원칙을 대중적으로 선전할 수는 없었다.⁶⁾ 자원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휴전회담이 중단되었기

6) Roemery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때문에 미국 정부는 “미국의 가족들이 참전한 자식들을 다시 안을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유엔군의 손에 달려 있는 공산군 포로들이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전쟁에 대한 지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송환을 거부하는 전쟁포로들의 권리를 둘러싼 싸움”이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자원 송환은 결코 전쟁 목표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승리하는 것”뿐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영은 휴전회담을 장기화함으로써 더 많은 희생을 낳았던 포로의 ‘자원 송환’ 원칙이 미국에게 결코 “승리의 대체물”이 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정책 실패가 미국인들에게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송환 방식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공산군 측이 이를 곧 받아들였다면 전쟁은 더 빨리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컸다.(233쪽)”는 그의 또 다른 역사적 상상은 그래서 더욱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그는 “한 국가가 실존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나섰지만, 그 전쟁이 사리사욕과 제국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기억은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미국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들에게 이 전쟁은 잊고자 한들 잊을 수 없는 ‘현재진행형’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5. 한국전쟁을 ‘역사’의 영역으로 돌려보내기

2010년에 영미 학계를 중심으로 제출된 위와 같은 6편의 한국전쟁 관련 연구 성과들이 전쟁 발발 60주년을 그들의 시선에서 돌아본 것이라면, 이러한 연구가 부지런한 역자들에 의해 뒤늦게나마 국내에 출간되어 소개된 것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2020년, 한국전쟁 70

주년을 앞두고 국내의 한국전쟁 연구를 추동하는 훌륭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특히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외면할 수 없는 실존적 과제이기도 하다. 정치적 종전 선언만으로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오해, 편견이 중첩되어 있는 이 전쟁을 진정한 의미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역사학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정리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인식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작업은 오랜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평화,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현재진행형’인 이 전쟁을 드디어 ‘역사’의 영역으로 돌려보내는 오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